분산투자의 효과

만약, 나에게 1억원이 있다고 합시다. 이 돈으로 잘 투자하여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아주 유망한 종목에 투자하여 수 십배의 수익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잘되면 수 십억원대의 부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글 _ 이재엽 | 재무설계사 E-mail : nest4000@naver.com C · P : 010-7708-4000

만약, 나에게 1억원이 있다고 합시다. 이 돈으로 잘 투자하여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아주 유망한 종목에 투자하여 수 십배의 수익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잘되면 수 십억원대의 부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희박하지만 로또를 계속 사서 한 번만 잘 되면 수백억원의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기예금에 투자하여 원금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지만 고작 연5%의 이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산을 나누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늘 논쟁거리였습니다. 어떤 이는 "깨지기 쉬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템플턴 프랭클린의 창업자인 "템플턴 경"이 이야기 하는 것이죠. 반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고 깨지지 않게 잘 지켜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습니다. 워렌버펫의 투자 방식이 이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옳은가요? 결론적으로, 두 가지가 모두 옳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나누어 투자하면 위험이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반면, 집중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결정일 경우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투자자의 재정적 현황과 투자의 능력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여기서 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가 탄생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이란 모르는 곳에 투자할 때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투자하기 전에 자신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 방법임을 아실 것입니다.

자신의 투자 지식과 투자 정보, 투자 경험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면 적절한 자산배분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한 투자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자산배분이론이란?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 방식은 투자성향에 따른 자산배분방식입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시장은 대체로 효율적이면서도 완전 경쟁에 가깝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투자방법을 혼자서만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실제로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높은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 즉 투자의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많은 수익을 얻으려면 더욱 적극적이고도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이러한 행동은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적 자산배분이론은 이러한 관점에서 과학적

인 자산배분과 포트폴리오 구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의 정기예금, 국채로 대변되는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이 5%이고, 투자자의 자산운용 기대 수익을 20%로 생각하고 있다면 은행의 정기예금으로 자산을 운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5%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투자자는 20%이상 기대할 수 있는 투자상품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자산군으로는 주식형 자산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자산배분이론이 표현하는 것은 과거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투자자산 배분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투자자의 경제활동 근거지, 생활환경, 나이, 자산규모, 투자목표, 투자성향 등에 따라 이러한 기준이 적절하게 조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Asset allocation

포트폴리오 구성전략은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위험도가 다른 다양한 상품에 대한 적절한 배분은 장기적으로 수익을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합니다. 자산배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명확한 철학과 지속적인 투자에 있습니다. 단기적 변화, 불명확하고 변화폭이 큰 자산배분전략은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투자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투자 시점이나, 개별 종목의 선택 능력보다는 어떤 자산군에 투자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단기적인 금리 예측이나 1%라도 더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찾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자산의 배분을 주식에 얼마, 부동산에 얼마, 예금에 얼마를 배정하고 꾸준하게 투자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주식에 투자할 때 아주 낮은 가격에 투자를 해서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한 타이밍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이와 함께 어떤 종목의 주식이 높이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종목 분석도 번갈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나의 투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투자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였을 때, 그 투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명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모두 주식에 50%, 채권에 50%의 투자를 결정하였다면 이 순간에 투자 성과의 90% 이상은 결판이 납니다.

그리고 그 중 한 사람이 종목 선택을 잘 했거나 투자 시기를 잘 잡았다 할 지라도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습니다. 반면,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채권에만 투자한 사람이 있다면 그 투자 결과는 자산배분을 결정하는 순간에 정해지고 실제 세부 상품의 투자 성과는 그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석결과에 대해 아직도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배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투자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뜻하지 않은 미래의 위험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좋은 방향으로 미래가 움직일 때 따라갈 수 있도록 자산구조나 투자 구조를 원칙에 입각하여 설계하는 것입니다.

즉,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인생을 일방향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기보다는 최소한의 자산 분산을 통해 물가상승에 대하여 대비(실물자산에 대한 투자)하고, 안정적인 채권, 예금에 투자하여 최악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나라 경제를 신뢰하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을 토대로 주식 등의 적극적 투자형 자산에 일부를 편입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산배분을 하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산배분의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길 듯이 투자의 결과도 충분히 쌓인 이후에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최후의 승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내와 노력이 투자 성공의 지름길 입니다. ❖